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기 위한 뉴욕의 법이 11월 13일에 발효된다고 발표

Cuomo 주지사, 지난 7월에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연령을 높이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 판매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S.2833/A.558)이 2019년 11월 13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의 건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주지사의 포괄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는 법적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치명적인 습관에 중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뉴욕 주민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담배 중독에 대처하기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12학년 학생의 거의 40% 및 고등학생 27%가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가향 전자담배 액상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0.5%에 그쳤던 고등학생의 담배 사용은 2018년 27.4%로 160%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율이 2000년 27.1%에서 2016년 4.3%의 사상 최저치로 감소한 반면, 가향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러한 추세를 바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향은 일반 담배, 시가, 및 무연 담배 시장과 같이 전자담배/에어로졸 산업에서 청년 마케팅의 핵심 전략입니다. 전자담배 마케팅에서는 민트 초콜릿, 풍선껌 및 체리 콜라와 같은 가향을 강조하며 사용자에게 해롭지 않다는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거의 78%의 고등학생, 75%의 중학생이 담배에 찬성하는 마케팅에 노출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 경찰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협력하여 미성년자 담배 사용 예방 법률(Adolescent Tobacco Use Prevention Act)에 따라 주 전역에서 비밀 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수사에서는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 구매를 시도하도록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요청합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 7월부터 1,700건이 넘는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흡입 제품을 판매로 적발된 소매업체는 이제 민사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서 흡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는 젊은이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의 88%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으며, 미성년자 담배 구매의 90%가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벌어집니다. 법적 구매 연령을 21세로 조정하는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들이 친구로부터 담배를 구할 수 없도록 막아서 청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거나 중독될 가능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